

- : Michel Bauwens, Nathan Schneider
- : [“Everything for everyone: Michel Bauwens interviews Nathan Schneider”](#) (2018.09.10) / [Attribution-ShareAlike 3.0 Unported](#)
- :
- :
- : 가

P2P [] 2014

FLOK (가) 가

[FLOK “Free/Libre Open Knowledge”]
(Trebor Scholz)

(Boulder)

□(Everything for Everyone)

?

가

가

(Thank You, Anarchy)

2012 201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2014

(OuiShare)

(Shareable)

(Neal Gorenflo),

P2P

가

가

가

가

2014

가

(New School)

가

가

가

? 가

?

가

가

가

가

가

, AP

가

가

가

OS 가

가

()

가

가

가

가

'FLOK'
?

가

FLOK

가 ,
가 .

?

?

가

(Clare of Assisi)

가

가

. 20

(John A.

Ryan)

(Albert J. McKnight)

(Federation of Southern Cooperatives)

(José María Arizmendiarieta)

가

‘ 가

? 가

?

[‘ 가 , 가]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 P2P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
16 .
-

가치 창출의 새로운 생태계

커먼즈 기반의 피어생산(peer production)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지식, 코드, 디자인의 공유된 커먼즈 주위에 세 개의 기관이 있다. 생산 공동체,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 그리고 지원단체이다. 이 생태계는 풍요로운 환경에 가루받이를 하는 식물로 그려질 수 있다.

디지털 커먼즈

식물의 꽃과 줄기는 커먼즈로 간주될 수 있으며 비경합적, 심지어는 환경합적 자원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자원을 끌어다 쓰면 쓸수록 자원은 더욱 강화된다.) 이 커먼즈는 특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확대되고 변경되고 그 목적이 재설정될 수 있다.

커먼즈 지향 기업들

지식의 커먼즈로부터 가루받이를 하는 벌들의 공동체는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Commons-oriented Entrepreneurial Coalitions)을 형성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의 자원의 주위에서 시장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커먼즈를 산출하는 공동체의 생계를 확보하는 한편 추출적이 아닌 생성적(generative) 실천들을 통해 모양을 풍요롭게 만든다.

생산 공동체

생산 공동체는 생태계를 먹여살리는 풍요로운 토양이다. 기여자들이 바로 영양소들로서 프로젝트를 그리고 연계 시스템들을 살지게 한다. 자원자들 급여를 받은 사람이든 기여자들 모두가 공유될 수 있는 자원을 생산한다.

지원단체

지원단체(for-benefit associations)는 생태계를 담아 보호하는 든든한 단지이다. 그러나 커먼즈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지는 않는다. 이는 풍요 지향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단체로서 기여하는 공동체들과 기업가연합으로 하여금 커먼즈 기반의 피어 생산(common-based peer production)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특수한 라이선스를 통해 커먼즈를 보호하며 그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이 가치 창출의 생태계 전체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는 것을 돕는다. 이 경제는 커먼즈에 기반을 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커먼즈를 적극적으로 파수하고 보호한다.

* 이 그림 설명은 P2P재단이 작성한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 에서 16면의 그림 설명의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P2P ()

- P2P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
8-9 .
-



커먼즈와 P2P란?

커먼즈란:



자원의 장기적 파수(把守)를 위한 사회 체계로서 공유된 가치들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한다.

자기조직화된 체계로서 이를 통해 공동체들이 시장과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혹은 최소로만 의존하면서 자원을 (소진되는 것과 다시 채워지는 것 모두) 관리한다.



종종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종종은 시장과 국가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방식으로 가치를 생성하는 경제(와 삶)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물려받거나 함께 창출하는 부는 감소되지 않거나 향상된 상태로 우리 후손에게 넘겨져야 한다. 우리의 집단적 부에는 자연의 선물들, 사회 기반시설, 문화 산물들과 전통, 그리고 지식이 포함된다.



커머닝 없이 커먼즈 없다!

커먼즈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자원



자원의 주위에 형성된 공동체



자원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단의 규칙들



P2P란:

인간의 네트워크들에서 일어나는
위계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은 유형의
사회적 관계들.



이 관계들의 규모 확대와 광범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 기반시설

P2P는 위 두 측면 위에 구축된
새로운 생산양식을 가능하게 한다.



P2P는 인간과 자연을 위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잠재력을
창출한다.

커먼즈와 P2P는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가?

P2P는 커먼즈에의 기여 행동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으로서 기능한다. P2P 는
커먼즈에서 특수한 '무엇'(자원), '누가'(공동체), '어떻게'(규칙들)의 관계를 최적
화하는 조건들을 창출한다.



* 이 그림 설명은 P2P재단이
작성한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에서 8-9
번의 그림설명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